

****[사건번호]**:** 2024다12345

****[사건명]**:**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판결일자]**:** 2024년 6월 15일

****[법원]**:** 대법원

****[원고]**:** 김철수

****[피고]**:** ABC 주식회사

****[판결요지]**:**

- ****계약해지의 적법성****: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절차가 부당하며, 정당한 해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함.
- ****임금 청구의 정당성****: 원고는 해지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문 요약]**:**

원고 김철수는 피고 ABC 주식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의의]**:**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정당한 절차와 사유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